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11월 19일(토) 오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제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2장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의 산물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열광 역시 대중 매체와 문화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오늘날 청소년은 가장 크고 중요한 대중문화의 소비층이고, 따라서 대중 매체나 문화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이다. 미디어와 문화 산업은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광고와 판매 전략을 동원해 청소년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마음을 놓으면 문화 산업의 광고 전략에 넘어가 한낱 소비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한낱 소비자일 뿐이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 문화를 판단하고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는 단지 문화의 객체일 뿐 결코 주체라 할 수 없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스타일로 꾸미면서, 거기에 비슷한 상품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히 '개성'을 내세운다. 도대체 모두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개성일 수 있는가. 결국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 문화 산업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

노래 제목이었구나. 나는 터치 패드를 넘겨 가며 저장된 곡을 찾기 시작하는 태수의 기다란 손가락을 본다. 약간 후회스러운 기분이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책을 읽는대거나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다. 유행가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도 노래도 없다.

할 수 없이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나는 버스 안을 흘끔 살펴본다. 무슨 음악 디제이(DJ)도 아니고 차 안에서 이런 걸 쓰고 있다니 어색하다. 태수는 곡을 못 찾은 모양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어디 갔지? 지웠나? 그때 갑자기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샘물 방울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찬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잠깐만.”

나는 태수의 무릎 위에서 엠프시리(MP3)를 가져다 내 손에 쥘다.

이젠 그제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진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 말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불쾌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에 그냥 웃지

< 뒷면에 계속 >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었으며,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뻗뻗해진 내 몸을 낚아채 잡아끌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나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우린 아마 이렇게 멎들어 가는지도 몰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서 굼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다섯 살 때였던가.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다. 엄마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사 와서 내게 입히고, 될 하든 기왕이면 예뻐야 한다며 머리핀도 꽂아 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들뜬 표정으로 놀이터로 뛰쳐나갔다.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그네와 미끄럼틀을 한 번씩 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뿐이었다. 그 뒤로 다시 그 원피스를 입었던가? 그건 기억 나지 않는다. 이웃 아줌마들에게 놀림은 당했던 것 같다. 고추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나 상쾌하고 신기해서 마치 우주여행이라도 한 것 같았다.

나만 그럴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옷을 입고 보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흉내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닌가. 한 인간의 내면에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섞여서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 하나 없다고 언젠가 엄마도 말했듯이.

[중략]

노래가 끝났다.

나의 가슴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아랫배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그제야 정류장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방탄소년단(BTS)의 영향력은 크다. 그 영향력은 BTS의 음악적 성취와 세계적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팬덤 ARMY(아미)를 움직이는 것은 BTS의 메시지다. 세상의 불평등과 폭력을 용인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자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의 아미를 행동하게 했다. 단순히 대중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팬의 입장을 넘어서, 아미는 'LOVE YOURSELF'와 'SPEAK YOURSELF'라는 BTS의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 정치, 환경, 차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많은 기부를 이어오며 여러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BTS는 아미가 현실에서 원하는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이 아미가 사회적·환경적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참여자가 되는 이유다.

그 중 하나가 브라질의 Army Help The Planet(AHTP)이다. BTS의 행동에 감동과 영향을 받아 선행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고, '팀워크가 꿈을 만든다.'는 것이 운영 철학이다. 아마존 보존지역에 토종 나무를 심는 자금을 모으는 캠페인, 세계 최대 열대습지인 판타날 지역에서 반복되는 화재 방지 캠페인 등 환경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나 파지틀리는 "한국의 일곱 소년은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을 감동시켰고, 모든 사람이 언어, 인종, 성별, 나이, 종교적 신념의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격려했다."며 "아미는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미 제시카 듀허스트는 인권운동가다. 2013년 남아프리카 비영리 인권단체 '저스티스 데스크(The Justice Desk)'를 설립해 인신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BTS는 그가 처음 접한 케이팝 그룹이었다. "심적으로 지쳐갈 때쯤 우연히 BTS의 '낫 투데이'를 듣게 됐다.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노래는 "패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는 RM의 랩으로 시작한다. 2017년 2월 발매된 '낫 투데이'는 사회운동에 나선 아미들에게 투쟁가와 같은 곡이다. 듀허스트는 BTS의 노래에 담긴 포용과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인권운동의 저항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 다음 면에 계속 >

[라]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 개방되고 더욱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페이스북의 목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합시다. 당신과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저커버그에게 생기와 추진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의 연설,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언론 인터뷰, 그리고 2017년 초 조용히 미국 전역을 돌아본 것은 모두 그 주제와 잘 통한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고 대체로 유익할 것이라고 믿었다.

저커버그는 2017년 초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서에서 “지난 10년간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가족을 연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라고 썼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다음에 집중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를 돕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소셜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으로서는 전환의 표시였다. 페이스북이 개인들을 연결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의 참여, 나아가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공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저커버그는 2016년 내내 페이스북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선출에 영향을 끼친 선전 선동에 자리를 깔아주고 부추겨 왔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도 상당한 비판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 또는 살인 장면을 이 서비스를 통해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굴하지 않고 저커버그는 2017년 성명서에서 “투표 이상으로 가장 훌륭한 기회는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몇 년 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중요한 문제에 잘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과 선출된 지도자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책임감 확립을 도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페이스북이 민주정치 과정에 유용하다는 점을 믿게 된 가장 놀라운 사례들을 거론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장관들에게 회의와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해 국민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유럽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최근 선거에서, 페이스북에서 참여도가 가장 높은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가진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봐 왔다. 텔레비전이 1960년대 시민 소통의 주요 미디어가 되었듯이 21세기에는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되고 있다.”

[마]

소셜 미디어가 우리에게 장려하는 행동은 온라인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내내 잠옷 차림으로 시트콤을 보면서 비스킷을 열 통이나 먹었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랑스럽고 빛나는 장면, 행복한 순간, 파티, 축하, 하얀 백사장,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음식 따위를 잘 골라서 온라인에 공유한다. 문제는 이렇게 포토샵으로 꾸며지고 필터링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항상 행복하고 사교적이며 성공한 그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하고 자신 없는 누군가가 나일까? 내 친구들이 ‘가짜 나’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의 소셜 미디어 인생을 신중하게 포장하면 할수록 프로필 뒤에 가려진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것은 고립감이고 단절감이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똑똑하고 예술적인 17세 테사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온라인 비디오게임의 아바타처럼 사는 것 같아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바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시장 조사 기업 커스터드가 영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겨우 18%만이 페이스북 프로필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필사적으로 신경 쓰고 때로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 모른다. 어쨌든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도 “온 세상이 연극 무대”라 하지 않았는가. 특히 10대는 어느 시대에나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캣아이 메이크업, 초미니스커트, 롱부츠, 가방에 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내가 14세일 때 신중하게 공들여 만든 페르소나(persona, 가면)였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는 이 핵심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간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우리는 자주 연기를 멈추고 사생활 속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곤 했다. 가령 14세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기 없이 잠옷 차림으로 친구들과 붙어 앉아 통속 드라마를 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인생의 매 순간이 잠재적 인생샷이니 이 연기가 대체 언제 멈출까?

< 뒷면에 계속 >

[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작은 빵집이 있다. 제과제빵 기능장이 정성껏 좋은 재료로 만드는 과자와 빵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가게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걱정한 빵집의 손님이 빵집이 기획한 과자 세트의 온라인 판매를 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과를 즐기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길 원했던 SNS 사용자들의 주문이 몰려 과자 세트는 판매 목표 수량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다. 빵집의 상호가 들어간 해시태그(#)가 생기고 '실시간 트렌드'에 등극했으며, 이를 본 다른 수많은 사용자들이 빵집의 SNS 계정을 방문했다. 주문이 하도 몰려 빵집의 오프라인 매장을 잠시 닫고 발주에 집중해야 할 정도였다. 이후 이 빵집은 인터넷 판매로 전환해 현재까지도 SNS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SNS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 미디어 중 하나이다. 뉴 미디어는 기술 및 의사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종합화, 상호 작용성, 비동시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종합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성은 뉴 미디어가 기존의 대중 매체가 지닌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성을 증진한 것이다. 비동시화는 과거에는 송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없었지만, 뉴 미디어는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SNS의 상호 작용성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도출한다. 해시태그는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시기도 한다. SNS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공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손님이 필요한 가게가 SNS를 활용해 자신들을 알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방문한다.

[사]

피드백 중독은 '좋아요' 증상이다. '좋아요'는 초를 다룬다. 접속과 동시에 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거나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한다. '좋아요'는 실시간 숫자로 명기되며 인맥의 유지를 확인시켜준다. 개인 계정은 확장적 자아로 기능하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교류하고 지속적 관계 맺기를 확인받는다. 누가 클릭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라도 하다는 듯 불안한 침묵은 '좋아요'로부터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통해 불안을 달래고 고독을 떨쳐내고 세계와 '나'의 연약한 고리를 붙잡는다.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 간격을 좁히다 못해 일체를 꿈꾼다. 경계가 사라지고 타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자아는 구별 불가능하다. 자아는 실시간 소비사회 속에서 계산되고 소멸된다. SNS의 허구성을 발견해지기도, 깨부술 의지를 갖기도 어렵다. 자아가 불안한 관성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곳곳에서 모든 힘이 동원된다. 평소 팔로우해 온 셀럽, 페친, 트위터 유저의 진단과 예측을 무조건 흡수하고 그의 판단 아래, 정보의 통제를 넘어 생각의 통제를 가속화한다. 공유와 리트윗을 통해 자아를 보고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를 가용해 편리대로 이해한다.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나' 대신 누군가 이어 붙인 이미지를 보고 본질을 파악한다. 소속감과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필연적인 소외가 발생하지만 결국 자발적 소외다. 나의 '자아'는 SNS의 물시간성에 의해 타자와 거리를 상실한 채 어쨌거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고 여기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타자는 얼마든지 '추가'되고 다른 의견을 가진 타자는 '삭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SNS는 대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과 비슷한 타자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돼 돌아오는 소리에 안식을 얻고 자기 자신의 반사된 얼굴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종의 자기 중독에 빠진다.

[문제 Ⅰ]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 ~ 9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Ⅱ] [라] ~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배점 60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체육계열 / (I) 문항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의 산물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열광 역시 대중 매체와 문화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오늘날 청소년은 가장 크고 중요한 대중문화의 소비층이고, 따라서 대중 매체나 문화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이다. 미디어와 문화 산업은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광고와 판매 전략을 동원해 청소년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마음을 놓으면 문화 산업의 광고 전략에 넘어가 한낱 소비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한낱 소비자일 뿐이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 문화를 판단하고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는 단지 문화의 객체일 뿐 결코 주체가 할 수 없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스타일로 꾸미면서, 거기에 비슷한 상품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히 '개성'을 내세운다. 도대체 모두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개성일 수 있는가. 결국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 문화 산업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내]

노래 제목이었구나. 나는 터치 패드를 넘겨 가며 저장된 곡을 찾기 시작하는 태수의 기다란 손가락을 본다. 약간 후회스러운 기분이 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책을 읽는대거나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다. 유행가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도 노래도 없다.

할 수 없이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나는 버스 안을 흘끔 살펴본다. 무슨 음악 디제이(DJ)도 아니고 차 안에서 이런 걸 쓰고 있다니 어색하다. 태수는 곡을 못 찾은 모양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어디 갔지? 지웠나? 그때 갑자기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샘물 방울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찬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잠깐만.”

나는 태수의 무릎 위에서 엠피스리(MP3)를 가져다 내 손에 쥘다.

이젠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진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 말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불쾌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었으며,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뻗뻗해진 내 몸을 낚아채 잡아끌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나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우린 아마 이렇게 멍들어 가는지도 몰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서 굵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다섯 살 때였던가.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다. 엄마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사 와서 내게 입히고, 뭘 하든 기왕이면 예뻐야 한다며 머리핀도 꽂아 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들뜬 표정으로 놀이터로 뛰쳐나갔다.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그 네와 미끄럼틀을 한 번씩 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뿐이었다. 그 뒤로 다시 그 원피스를 입었던가?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 이웃 아줌마들에게 놀림은 당했던 것 같다. 고추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나 상쾌하고 신기해서 마치 우주여행이라도 한 것 같았다.

나만 그럴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옷을 입어 보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흉내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닌가. 한 인간의 내면에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섞여서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 하나 없다고 언젠가 엄마도 말했듯이.

[중략]

노래가 끝났다.

나의 가슴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아랫배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그제야 정류장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

방탄소년단(BTS)의 영향력은 크다. 그 영향력은 BTS의 음악적 성취와 세계적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팬덤 ARMY(아미)를 움직이는 것은 BTS의 메시지다. 세상의 불평등과 폭력을 용인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하자는 메시지가 전 세계의 아미를 행동하게 했다. 단순히 대중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팬의 입장을 넘어서, 아미는 'LOVE YOURSELF'와 'SPEAK YOURSELF'라는 BTS의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 정치, 환경, 차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많은 기부를 이어오며 여러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BTS는 아미가 현실에서 원하는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이 아미가 사회적·환경적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참여자가 되는 이유다.

그 중 하나가 브라질의 Army Help The Planet(AHTP)이다. BTS의 행동에 감동과 영향을 받아 선행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고, '팀워크가 꿈을 만든다.'는 것이 운영 철학이다. 아마존 보존지역에 토종 나무를 심는 자금을 모으는 캠페인, 세계 최대 열대 습지인 판타날 지역에서 반복되는 화재 방지 캠페인 등 환경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나 파치롤리는 "한국의 일곱 소년은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을 감동시켰고, 모든 사람이 언어, 인종, 성별, 나이, 종교적 신념의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격려했다."며 "아미는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미 제시카 듀허스트는 인권운동가다. 2013년 남아프리카 비영리 인권단체 '저스티스 데스크(The Justice Desk)'를 설립해 인신 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BTS는 그가 처음 접한 케이팝 그룹이었다. "심적으로 지쳐갈 때쯤 우연히 BTS의 '낯 투데이'를 듣게 됐다.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노래는 "패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는 RM의 랩으로 시작한다. 2017년 2월 발매된 '낯 투데이'는 사회운동에 나선 아미들에게 투쟁가와 같은 곡이다. 듀허스트는 BTS의 노래에 담긴 포용과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인권운동의 저항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문제 I] [대]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 ~ 900자 이하: 배점 40점]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문학』의 '정확하고 비판적인 읽기,' '소통의 글쓰기,' '바른 맞춤법,'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문화 발전,' '문제 해결의 사유' 영역, 『독서』의 '주제 통합적 읽기' 영역, 『통합사회』의 '통합적 관점의 이해,' '통신 발달과 정보화,' '문화와 다양성' 영역,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영역, 『생활과 윤리』의 '정보 사회와 윤리,' '대중문화 윤리' 영역, 『윤리와 사상』의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 '현대의 윤리적 삶'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는 오늘날에 '대중문화 및 정보사회의 의미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을 성찰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논제 I]의 [가], [나], [다] 제시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대중문화가 개인에게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 대중문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 등 대중문화에 관한 다양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대중문화가 어떠한 문제와 한계를 지닐 수 있고, 어떠한 개인 및 사회 차원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고찰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대중문화를 문화산업, 개인의 성장, 사회의 진보 등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시문 [가]는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에 종속되어 있어 우리를 한갓 소비자로 전락시킨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대중문화가 한 개인을 심리적으로 위로하며 그의 심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BTS와 그 팬클럽 '아미'의 사례를 통해 대중문화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매개체라는 주장을 전개한다.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볼 때, 제시문 [가]는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만 말한다는 한계가 있고, 제시문 [나]는 대중문화의 긍정성을 한 소년이 받는 심리적 위로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의 사회적 순기능을 보완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다양한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을 출제하였다. 대중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지문들을 선별하였다. 현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의 '문학의 주체적 감상과 비평,' '정확하고 비판적인 읽기,' '소통의 글쓰기,' '바른 맞춤법,'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문화 발전,' '문제 해결의 사유' 영역, 『독서』의 '주제 통합적 읽기' 영역, 『통합사회』의 '통합적 관점의 이해,' '문화와 다양성' 영역,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영역, 『생활과 윤리』의 '대중문화 윤리'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20	pp.196-97	0
[나]	『고등학교 문학』 (은희경, 『소년을 위로해 줘』)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19	pp.63-65	0
[다]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시사위크』	조유빈	시사위크	2022	인터넷 기사	0
	「전 세계 풀뿌리 운동 에너지원 BTS팬덤 '아미 액티비즘」, 『시사IN』	김영화	시사IN	2022	인터넷 기사	0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상품이며,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역시 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자일 뿐이다. 이 제시문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화된 대중문화의 범람과 그 부정성을 경고한다. 이 점은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스타일로 꾸미면서, 거기에 비슷한 상품을 들고 다닌다. . . 도대체 모두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개성일 수 있는가. 결국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 문화 산업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장에 명료하게 들어있다.

제시문 [나]는 고교 교과서에 실린 은희경의 소설을 발췌한 것으로서 대중음악이 한 소년의 성장 과정에 끼친 긍정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나]의 화자는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의 분류가 부당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남자스러움'을 강요받고 그것에 불편해하면서도 순응하는 내용의 노래 가사를 듣고 자신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느낀다. 이런 사회적 강요에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만의 고립된 경험이 아님을 깨달은 화자는 깊은 위로를 받는다. 대중문화의 긍정적 역할을 보여주는 이 상황은 제시문 [가]와 대조를 이루는 반면, 제시문 [다]에서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순기능을 개인적 심리 차원의 긍정적 사례로 보완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언론매체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대중문화가 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BTS가 세상의 불평등과 폭력을 용인하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팬클럽인 '아미'가 그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 사회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단순한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소비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매개체이다.

[문제 I]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에서 제시한 입장 또는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광범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상황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문제 I] (801자 이상~900자 이하)

- 700자 미만: 감점 10점
- 700자 이상~750자 미만: 감점 5점
- 950자 이상~1,000자 미만: 감점 5점
- 1,000자 이상: 감점 10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문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다]와 [가]가 대중문화와 관련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임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평가했다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다]와 [나]가 대중문화와 관련해 서로 유사한 입장임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서술했다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다]가 대중문화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한 반면 제시문 [나]는 대중문화가 개인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 이에 따라 [다]와 [나]는 대중문화의 긍정성을 함께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밝히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다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

[다]는 대중문화의 긍정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BTS가 세상의 불평등과 폭력을 용인하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아미가 그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 사회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단순한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소비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매개체이다.

대중문화의 긍정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다]의 관점에서 [가]의 상황은 부정적이다. [가]는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상품이며,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역시 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자일 뿐이다. 그러나 [다]의 입장에서 [가]의 주장은 대중문화를 문화산업과 동일시함으로써 대중문화가 지닌 긍정적 파급력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특히 [다]는 상품과 소비자의 논리로 축소될 수 없는 정도의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가수와 팬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가]의 주장은 문화산업의 악영향에만 경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나]는 대중음악이 한 소년의 성장 과정에 끼친 긍정적 영향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의 관점과 유사하다. [나]의 화자는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의 분류가 부당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남자스러움'을 강요받고 그것에 불편해하면서도 순응하는 내용의 노래 가사를 듣고 자신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느낀다. 이런 사회적 강요에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만의 고립된 경험이 아님을 깨달은 화자는 깊은 위로를 받는다. [다]의 입장에서는 [나]의 화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위위가 대중문화의 긍정적 기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보일 것이다. (898자)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체육계열 / (II)문항

2.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라]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 개방되고 더욱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페이스북의 목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합시다. 당신과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저커버그에게 생기와 추진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의 연설,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언론 인터뷰, 그리고 2017년 초 조용히 미국 전역을 돌아본 것은 모두 그 주제와 잘 통한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고 대체로 유익할 것이라고 믿었다.

저커버그는 2017년 초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서에서 “지난 10년간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가족을 연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라고 썼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다음에 집중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를 돕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소셜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으로서는 전환의 표시였다. 페이스북이 개인들을 연결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의 참여, 나아가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세계평화와 공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저커버그는 2016년 내내 페이스북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선출에 영향을 끼친 선전선동에 자리를 깔아주고 부추겨 왔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도 상당한 비판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 또는 살인 장면을 이 서비스를 통해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굴하지 않고 저커버그는 2017년 성명서에서 “투표 이상으로 가장 훌륭한 기회는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몇 년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중요한 문제에 잘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과 선출된 지도자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책임감 확립을 도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페이스북이 민주정치 과정에 유용하다는 점을 믿게 된 가장 놀라운 사례들을 거론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장관들에게 회의와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해 국민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유럽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최근 선거에서, 페이스북에서 참여도가 가장 높은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가진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봐 왔다. 텔레비전이 1960년대 시민 소통의 주요 미디어가 되었듯이 21세기에는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되고 있다.”

[마]

소셜 미디어가 우리에게 장려하는 행동은 온라인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내내 잠옷 차림으로 시트콤을 보면서 비스킷을 열 통이나 먹었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랑스럽고 빛나는 장면, 행복한 순간, 파티, 축하, 하얀 백사장,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음식 따위를 잘 골라서 온라인에 공유한다. 문제는 이렇게 포토샵으로 꾸며지고 필터링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항상 행복하고 사교적이며 성공한 그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하고 자신 없는 누군가가 나일까? 내 친구들이 ‘가짜 나’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의 소셜 미디어 인생을 신중하게 포장하면 할수록 프로필 뒤에 가려진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것은 고립감과 단절감이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똑똑하고 예술적인 17세 테사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아바타처럼 사는 것 같아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바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시장 조사 기업 커스터드가 영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겨우 18%만이 페이스북 프로필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필사적으로 신경 쓰고 때로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나. 어쨌든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도 “온 세상이 연극 무대”라 하지 않았는가. 특히 10대는 어느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컷아이 메이크업, 초미니스커트, 롱부츠, 가방에 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내가 14세일 때 신중하게 공들여 만든 페르소나(persona, 가면)였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는 이 핵심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간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우리는 자주 연기를 멈추고 사생활 속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곤 했다. 가령 14세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기 없이 잠옷 차림으로 식구들과 붙어 앉아 통속 드라마를 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인생의 매 순간이 잠재적 인생샷이니 이 연기가 대체 언제 멈출까?

[배]

경기도의 한 도시에 작은 빵집이 있다. 제과제빵 기능장이 정성껏 좋은 재료로 만드는 과자와 빵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가게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걱정하던 빵집의 손님이 빵집이 기획한 과자 세트의 온라인 판매를 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과를 즐기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길 원했던 SNS 사용자들의 주문이 몰려 과자 세트는 판매 목표 수량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다. 빵집의 상호가 들어간 해시태그(#)가 생기고 ‘실시간 트렌드’에 등극했으며, 이를 본 다른 수많은 사용자들이 빵집의 SNS 계정을 방문했다. 주문이 하도 몰려 빵집의 오프라인 매장을 잠시 닫고 발주에 집중해야 할 정도였다. 이후 이 빵집은 인터넷 판매로 전환해 현재까지도 SNS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SNS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뉴 미디어는 기술 및 의사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종합화, 상호 작용성, 비동시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종합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성은 뉴 미디어가 기존의 대중 매체가 지닌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성을 증진한 것이다. 비동시화는 과거에는 송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없었지만, 뉴 미디어는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SNS의 상호 작용성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도출한다. 해시태그는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시기도 한다. SNS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공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손님이 필요한 가게가 SNS를 활용해 자신들을 알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방문한다.

[사]

피드백 중독은 ‘좋아요’ 증상이다. ‘좋아요’는 초를 다룬다. 접속과 동시에 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거나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한다. ‘좋아요’는 실시간 숫자로 명기되며 인맥의 유지를 확인시켜준다. 개인 계정은 확장적 자아로 기능하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교류하고 지속적 관계 맺기를 확인받는다. 누가 클릭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라도 하다는 듯 불안한 침묵은 ‘좋아요’로부터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통해 불안을 달래고 고독을 떨쳐내고 세계와 ‘나’의 연약한 고리를 붙잡는다.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 간격을 좁히다 못해 일체를 꿈꾼다. 경계가 사라지고 타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자아는 구별 불가능하다. 자아는 실시간 소비사회 속에서 계산되고 소멸된다. SNS의 허구성을 발견하지도, 깨부술 의지를 갖기도 어렵다. 자아가 불안한 관성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곳곳에서 모든 힘이 동원된다. 평소 팔로우해 온 셀럽, 페친, 트위터 유저의 진단과 예측을 무조건 흡수하고 그의 판단 아래, 정보의 통제를 넘어 생각의 통제를 가속화한다. 공유와 리트윗을 통해 자아를 보고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를 가용해 편리대로 이해한다.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나’ 대신 누군가 이어 붙인 이미지를 보고 본질을 파악한다. 소속감과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필연적인 소외가 발생하지만 결국 자발적 소외다. 나의 ‘자아’는 SNS의 몰시간성에 의해 타자와 거리를 상실한 채 어쨌거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고 여기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타자는 얼마든지 ‘추가’되고 다른 의견을 가진 타자는 ‘삭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SNS는 대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과 비슷한 타자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돼 돌아오는 소리에 안식을 얻고 자기 자신의 반사된 얼굴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종의 자기 중독에 빠진다.

[논제 Ⅲ [라] ~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배점 60점]

3.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문학』의 ‘정확하고 비판적인 읽기,’ ‘소통의 글쓰기,’ ‘바른 맞춤법,’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문화 발전,’ ‘문제 해결의 사유’ 영역, 『독서』의 ‘주제 통합적 읽기’ 영역, 『통합사회』의 ‘통합적 관점의 이해,’ ‘통신 발달과 정보화,’ ‘문화와 다양성’ 영역,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영역, 『생활과 윤리』의 ‘정보 사회와 윤리,’ ‘대중문화 윤리’ 영역, 『윤리와 사상』의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 ‘현대의 윤리적 삶’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는 오늘날에 ‘대중문화 및 정보사회의 의미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을 성찰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논제 II]의 [라], [마], [바], [사] 제시문들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상징인 소셜 미디어(누리 소통망, SNS)의 사회적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입장과 SNS로 인해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를 잃게 되는 부정적 측면을 주목하는 입장 등 대조되고 상반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SNS가 어떠한 문제와 한계를 지닐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사회 차원의 실용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탐색·고찰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SNS를 사회적 기능의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 자아의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시문 [라]는 저커버그의 말을 통해, SNS는 개인들의 연결을 넘어 공동체의식의 함양, 시민사회의 참여, 민주정치의 활성화, 세계평화 공존의 촉진에 유용하다고 역설한다. 제시문 [마]는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멋있는 걸모습으로 꾸며 남에게 ‘가짜 나’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경향을 지적하며,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진정한 자아와 근본적으로 단절된다고 비판한다. 제시문 [바]는 작은 빵집의 사례를 통해 SNS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인적 관계망을 구축해주고, 그들 관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 취향에 맞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는 SNS에서 남이 눌러주는 ‘좋아요’ 클릭을 통해 불안과 고독을 떨쳐내는 피드백 중독 현상을 묘사하며,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의 간격이 없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자아는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다양한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I]를 출제하였다. 정보사회의 핵심 도구인 SNS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지문들을 선별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문학』의 ‘정확하고 비판적인 읽기,’ ‘소통의 글쓰기,’ ‘바른 맞춤법,’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문화 발전,’ ‘문제 해결의 사유’ 영역, 『독서』의 ‘주제 통합적 읽기’ 영역, 『통합사회』의 ‘통합적 관점의 이해,’ ‘통신 발달과 정보화’ 영역,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영역, 『생활과 윤리』의 ‘정보 사회와 윤리’ 영역, 『윤리와 사상』의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 ‘현대의 윤리적 삶’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라]	『페이스북은 어떻게 우리를 단절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시바 바이디야나단	아라크네	2020	pp.21-23	0
[마]	『고립의 시대』	노리나 허츠	웅진지식하우스	2021	pp.184-86	0
[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택준 외	지학사	2020	pp.128-29	0
	트위터 “케이크 디아망” 관련 트윗	-	트위터	2022	SNS 사례	0
[사]	「SNS와 도둑맞은 자아」, 『레디앙』	여미애	레디앙	2019. 8. 31.	인터넷 기사	0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페이스북과 민주주의에 관한 외국 학자의 책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으로서 페이스북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한 마크 저커버그의 주장을 소개한다. 저커버그는 SNS가 개인들의 연결을 넘어 공동체의식의 함양, 시민사회의 참여, 민주정치의 활성화, 세계평화 공존의 촉진에 유용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그는 SNS가 이용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돕는다는 점은 SNS 팔로워 수가 많은 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거두는 실제의 경향으로 증명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마]는 현대인이 겪는 고립과 단절의 문제를 다룬 외국 학자의 책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으로서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멋있는 걸모습으로 꾸며 남에게 '가짜 나'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경향을 지적한다.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진정한 자아와 근본적으로 단절된다. 과거에는 남에게 실제보다 더 잘 보이려는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곤 했지만, 이제는 SNS로 인해 이 연기가 멈추지 않는 일상이 되었다.

제시문 [바]는 트위터에 소개된 실제의 사례를 고교 교과서 내용과 문장을 반영해 재구성한 것으로서 SNS를 통한 성공적인 소비자-생산자 관계를 제시해준다. SNS가 작은 빵집의 홍보를 돕고, 빵을 사서 소상공인을 돕길 원하는 손님들을 연결시켜 개인의 취향을 현실화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 효과에 대해 소개한다. 즉, SNS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인적 관계망을 구축해주고, 그들 관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 취향에 맞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사]는 철학자 한병철의 책에 대한 인터넷 언론매체의 서평 기사를 발췌, 재구성한 것으로서 SNS에서 남이 눌러주는 '좋아요' 클릭을 통해 불안과 고독을 떨쳐내는 현대인의 피드백 중독 현상을 묘사한다.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의 간격이 없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자아는 소멸된다. 나와 다른 타자는 배제하고 유사한 타자만 추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가 아닌 자기 목소리의 공허한 메아리만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 II]은 네 개의 제시문을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채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취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반대 입장을 얼마나 조리 있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SNS의 사회적 순기능을 주목하며 SNS를 긍정적으로 보는 [라], [바]를 한 부류로 묶고, SNS로 인한 자아 상실의 문제에 주목해 SNS를 부정적으로 보는 [마], [사]를 또 한 부류로 묶어 상호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논제이다.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문제 II]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900자 미만 : 감점 10점

900자 이상~950자 미만: 감점 5점

1,150자 이상~1,200자 미만: 감점 5점

1,200자 이상 : 감점 10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2) [문제 I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을, SNS를 긍정적으로 보는 [라]와 [바], 부정적으로 보는 [마]와 [사]로 분류했으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을 [라]와 [바] 또는 [마]와 [사]의 입장으로 묶어 그 핵심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을 [라]와 [바]의 사회적 순기능의 입장에서 [마]와 [사]의 개인적 역기능인 자아 상실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거나, 또는 [마]와 [사]의 개인적 역기능의 입장에서 [라]와 [바]의 사회적 순기능에 집중한 입장을 비판할 때 논거에 따라 비판했으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6.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라], [바]의 관점에서 [마], [사]를 비판하는 경우

[라]와 [바]는 SNS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다. 사회적 순기능이 크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라]는 저커버그의 말을 통해, SNS는 개인들의 연결을 넘어 공동체의식의 함양, 시민사회의 참여, 민주정치의 활성화, 세계평화 공존의 촉진에 유용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SNS가 이용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돕는다는 점은 SNS 팔로워 수가 많은 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거두는 실제의 경향으로 증명된다. [바]는 SNS가 작은 빵집의 홍보를 돕고, 빵을 사서 소상공인을 돕길 원하는 손님들을 연결시켜 개인의 취향을 현실화하도록 돕는 좋은 실용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SNS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인적 관계망을 구축해주고, 그들 관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 취향에 맞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라],[바]의 입장에서 [마],[사]는 SNS에 수반되는 자아의 문제만 따지고 사회적 순기능을 무시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마]는 SNS 속에서 꾸며지고 포장되는 우리 모습이 진정한 자아와 동떨어진 '가짜 나'이며, 우리는 멋진 겉모습을 보이려고 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의 입장에 대해, [라],[바]는 SNS가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 각자의 진정한 모습을 현실화하는 실용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사]는 SNS에서 남이 눌러주는 '좋아요' 클릭을 통해 불안과 고독을 떨쳐내는 피드백 중독 현상을 묘사한다.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의 간격이 없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자아는 소멸된다. 나와 다른 타자는 배제하고 유사한 타자만 추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가 아닌 자기 목소리의 공허한 메아리만을 듣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라],[바]는 SNS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키워 긍정적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이처럼 [라],[바]는 SNS가 우리의 자아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연결을 통해 우리 각자의 관점과 취향을 드러내고 남들과 소통하는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한다고 본다. (1,052자)

[마], [사]의 관점에서 [라], [바]를 비판하는 경우

[마]와 [사]는 SNS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힘들게 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마]는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멋있는 겉모습으로 꾸며 남에게 '가짜 나'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경향을 지적한다.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진정한 자아와 근본적으로 단절된다. 과거에는 남에게 실체보다 더 잘 보이려는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곤 했지만, 이제는 SNS로 인해 이 연기가 멈추지 않는 일상이 되었다. [사]는 SNS에서 남이 눌러주는 '좋아요' 클릭을 통해 불안과 고독을 떨쳐내는 피드백 중독 현상을 묘사한다.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의 간격이 없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자아는 소멸된다. 나와 다른 타자는 배제하고 유사한 타자만 추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가 아닌 자기 목소리의 공허한 메아리만을 듣게 된다.

[마],[사]의 입장에서 [라],[바]는 SNS의 사회적 순기능만 강조하고 자아 상실의 문제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라]에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개인을 가족, 친구들에게 연결해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 민주정치의 활성화, 세계평화와 공존의 촉진에도 유용하다고 역설한다. [마],[사]는 [라]의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연결의 기능적 결모습만 중시한 채, 그 연결의 이면에서 가면을 쓴 '가짜 나'를 연기하고 남의 피드백에 중독된 자아 상실의 인간을 외면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바]는 SNS를 이용한 손님들과 소상공인이 연결되어 성공을 거둔 작은 빵집의 예를 통해 SNS의 좋은 실용적 효과를 논한다. SNS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인적 관계망을 구축해주고, 그들 관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 취향에 맞는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마],[사]의 관점에서는 SNS의 긍정적 사례만 주목하고 SNS에서 '가짜 나'로 남을 기만하거나 남의 피드백에 중독되어 부화뇌동하며 개성을 잃어버린 사례들을 무시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라],[바]처럼 SNS의 사회적 순기능을 조명할 경우에는 인간 자아 상실이라는 역기능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059자)